

몸집 줄이기 나선 증권업계... 명퇴·디지털화 동시 추구

2019 금융전망

증권

IB부문 수익 강세·위탁매매 둔화 기업금융 강화·中小 투자 활발 전망

2019년 증권업종의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 증시 침체에 따라 거래액 감소가 나타나고 있고, 이는 곧 수익성 악화로 귀결될 수 있어서다. 이 때문에 증권업계는 올해 화두를 '디지털화(化)'로 꼽았다. 또 명예퇴직을 통해 몸집 줄이기에 나섰다. 4차산업혁명시대 증권업의 과제는 '수익 효율성'이다.

6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2019년 주요 6개 증권사(미래에셋대우,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 메리츠증권, 키움증권)의 순이익은 전년보다 8.4% 정도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중소형 증권사 이익 전망치를 모두 합치면 이보다 낮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투자은행(IB) 부문에서는 견조한 수익을 이어나갈 것지만 브로커리지(위탁매매) 부문 수익성 둔화는 피할 수 없다는 분석에서다.

<2019년 증권 부문별 전망>

사업부문	음지	양지	2019년 전망
위탁매매	경기 침체 우려	비용효율성 증가 증권거래세 인하 기대	
IB(투자은행)	부동산PF 우려	업무영역 확대 성장, 정책, IPO	
자기매매	금리인상/ELS 우려	운용능력 향상 많은 기회	
자산관리	과거 대비 낮은 잔고	고객 유지·상품 다양화	

[자료=유안타증권]

교보증권은 2019년 국내 주식시장 일평균 거래금액이 9조2000억원에 그칠 것으로 봤다. 전년과 비교해서 18.8% 줄어든 수치다. 증시 위축에 따른 자연스러운 감소세라는 설명이다.

아울러 국내 증권사 지점수는 2010년을 정점으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지난 2018년 9월말 기준 국내 증권사 지점은 1001개다. 2010년(1813개)과 비교해 반토막난 수준이다.

이에 따라 증권업계는 '새로운 판' 조성에도 나섰다. 그 전략 중 하나는 '디지털 혁신'이다. 올해 증권사 최고경영자(CEO)의 신년사에서 '디지털 강화' 트렌드를

읽을 수 있었다.

◆“우리의 과제는 디지털 혁신”

국내 증권사 중 처음으로 디지털금융 부문을 별도 부서로 독립시킨 미래에셋대우는 신년사를 통해 4가지 중점사업부문을 디지털과 글로벌, 투자전문, 연금으로 꼽고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이를 융합하는 게 과제라고 밝혔다.

최현만 미래에셋대우 수석부회장은 "IB와 트레이딩(Trading) 직원이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새로운 데이터(data) 기법을 도입하고, 관리부문 직원이 코딩프로그래밍을 익혀 업무효율화를 이루어내는 등 많은 모범사례들이 나오고 있다"며 "용

합을 통한 시너지 창출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NH투자증권과 KB증권 CEO 역시 디지털 혁신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휴트레이딩시스템(HTS),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등 주식거래에만 활용되고 있는 디지털 플랫폼을 자산관리, 기업금융 트레이딩 등 다양한 분야에 접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KB증권은 디지털 담당 임원을 전무급으로 조정하고 디지털혁신본부를 신설했다. NH투자증권 역시 디지털전략총괄을 신설해 회사 전반의 디지털전략과 혁신을 통한 업무 효율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정일문 한국투자증권 사장은 "디지털 금융에 기반한 혁신적인 자원 체계 정립은 우리가 반드시 확보해야 할 생존 수단"이라고 신년사를 통해 밝혔다.

◆“수익효율을 높여라”

앞으로 증권업계는 '더 많이 버는 것'보다 '잘 버는 것'이 경쟁력의 척도가 될 전망이다. 증권업계는 개인투자자들의 돈으로 성장하는 것을 넘어서 기업과 같은 큰 손들을 대상으로 수익성 높은 사업에 집중하고 있다. 실제 국내 증권사의 총 자산대비 기업 신용 비중은 2013년 0.

42%에서 지난해 3분기 기준 2.04%로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특히 발행어음 등 증권업계에 신규사업이 확대되고 있는 것은 긍정적이다.

현재 발행어음 인가를 받고 영업하고 있는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은 1년 남짓한 시간 동안 각각 3.4조원, 1.6조원(2018년 9월 기준)의 발행어음 자금을 끌어모으며 순조롭게 신(新) 사업을 이어가고 있다.

향후 증권사의 기업금융 기능은 강화될 전망이다. 기업신용공여가 확대됐고, 순자본비율(NCR) 규제 완화로 투자여력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또 키움증권, IBK투자증권 등 중기 특화 증권사 출현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증권사의 투자도 활발해질 전망이다.

다만 증권업계의 '인원감축'을 통해 또 다른 수익성 극대화를 추구하는 모양새다. 현재 KB증권, 신한금융투자가 희망퇴직을 받고 있고, 지난 4일 미래에셋대우 역시 희망퇴직 계획을 공식화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기준 국내 증권사 임직원 수는 총 3만6220명으로 2010년(4만2935명)과 비교해서 15.6% 줄었다. [손잡지 기자 sonumji301@metroseoul.co.kr]

한파부는 이동통신 시장

번호이동 줄어 들고 25% 요금할인 늘고

지원금보다 높아 굳이 변경 필요없어 이통사 무선 수익 감소·알뜰폰도 타격

이동통신 시장에 매서운 한파가 불고 있다. 번호이동은 최저치를 기록하고, 통신비 요금 인하 등의 영향으로 25% 요금할인 가입자가 늘면서 주력인 무선사업에서 수익을 내기 어려워진 탓이다.

6일 이동통신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통신업계에 따르면 25% 요금할인 가입자는 지난해 11월 기준, 1997만명으로 집계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부터 9월부터 정부의 통신비 인하 정책의 일환으로 선택약정할인 비율이 기존 20%에서 25%로 확대돼 이동통신 3사는 공시지원금을 받지 않는 가입자를 대상으로 1~2년간 통신업체를 바꾸지 않는 약정을 하면 휴대전화를 살 때 월 통신 요금을 25% 할인해 주고 있다.

공시지원금 대신 요금할인율을 받는 가입자가 늘며, 요금할인율 상향 이후 거의 1년 만에 가입자가 3.5배로 급증하며 2000만명에 육박했다. 기존 20% 할인을 포함한 전체 요금할인 가입자는 지난해 11월 말 2412만명에 달한다.

공시지원금을 받고 통신사를 옮기기



서울 시내 한 시민이 이동통신 판매점에서 단말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보다는 요금할인을 택한 이용자가 많아 번호이동 수도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

실제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에 따르면, 지난해 이동통신 3사와 알뜰폰의 번호이동 건수는 566만601건으로 전년보다 19.3% 급감했다. 월평균으로는 47만1717건에 그쳐 2005년 46만4391건 이후 처음으로 50만건을 밑돌았다.

반면, 지난해 11월 이통사를 유지한 채 휴대전화만 변경한 기기변경 이용자는 114만2684명으로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

다. 이용자 입장에서는 요금할인액이 지원금보다 많아 굳이 통신사를 바꿀 이유가 없는 셈이다.

이와 함께 이동통신사의 무선수익도 감소하고 있다. 선택약정할인 가입자의 할인 금액이 고스란히 이동통신사 수익과 이어지기 때문이다. 이동통신 3사 3·4분기 영업이익은 9017억원으로 직전 분기보다 821억원 줄어드는 등 수익성 악화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특히 대규모 5세대(5G) 이동통신 투자비용도 난관이다.

알뜰폰도 타격을 입고 있다. 알뜰폰의 지난해 번호이동 건수는 99만9917건으로, 2013년 이후 5년 만에 처음으로 100만 건 아래로 떨어졌다. 가입자당월평균매출(ARPU) 하락세도 두드러지고 있다.

이동통신사들은 5G 시대를 맞아 '탈 이동통신' 전략으로 신사업 발굴을 통한 돌파구를 찾고 있다. 5G 시대에는 기업 간 거래(B2B)가 중점이 되면서 무선 ARPU의 상승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인터넷TV(IPTV)를 비롯한 미디어 콘텐츠 사업이 성장세를 보이며 새 성장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다. 지난 3·4분기 이통3사의 IPTV 매출은 9459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7595억원) 대비 24.5% 성장했다.

[김나인 기자 silkni@

소매유통업계, 1분기도 경기 하락 예상

소매유통업계가 1분기 여전한 경기 하락세를 예상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소매유통업체 1000개사를 대상으로 '2019년 1분기 소매유통경기전망지수(RBSI)'를 조사한 결과, RBSI가 92로 집계됐다고 6일 밝혔다.

이는 3분기 연속 하락한 것이다. 지난 분기보다도 4포인트나 떨어졌다.

업체별로는 편의점이 17포인트나 줄어

든 71에 불과했다. 슈퍼마켓도 1포인트 감소해 80이 됐다. 최저임금 인상과 온라인 배달서비스 등이 요인으로 추정된다. 근접출점 제한과 카드수수료 인하 등 정부 지원정책이 시행됐지만, 아직 별다른 효과를 나타내지는 못했다.

홈쇼핑과 온라인쇼핑 RBI는 각각 110과 103으로 여전히 높았지만, 지난 분기와 비교하면 10포인트, 4포인트 줄었다.

계절적 비수기와 더불어 시장 침체 영향도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소매유통업계 1분기 수익성은 '악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72.9%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호전될 것'이라는 전망은 8.5%에 불과했다. 업체별로는 편의점이 88.8%에서 수익성 악화를 우려했고, 슈퍼마켓(67.5%), 대형마트(55.3%) 등에서도 나타났다. 상황이 좋은 온라인쇼핑과 홈쇼핑에서도 전분기 수준 수익을 기대하는 업체가 74.2%, 40%였다.

[김재용 기자 juk@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이 4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2020년 은퇴 계획을 밝히고 있다.

“해외 직판 시스템 만든 후, 내년 은퇴”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램시마SC’로 해외 직판 체제 구축 은퇴 후 전문경영인에 맡길 계획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이 은퇴를 선언했다. 내년까지 해외 직판판매 시스템을 마련한 후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겠다는 계획이다. 서 회장은 은퇴 후에 회사는 전문경영인 체제로 전환할 예정이다. 서 회장은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의지를 밝혔다.

서 회장은 “램시마SC”를 내세워 글로벌 직판 체제를 구축하고, 올해 중국 시장 진출을 위한 법인 설립, 케미칼(합성 의약품)의 수출 등을 계획 중”이라며 “1400조원 규모의 세계 제약 시장을 공략하겠다”고 말했다.

램시마SC는 셀트리온의 첫 번째 바이오 시뮬러(바이오의약품 복제약) ‘램시마’(성분명 인플릭시맙)를 피하주사로 만든 제품이다. 자가주사할 수 있어서 환자가 병원을 방문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다. 지난해 유럽의약품청(EMA)에 허가를 신청해 이르면 올해 10~11월께 허가가 예상된다.

그는 “올 한해 글로벌 직판 가능성을 따져보기 위해 네덜란드 주재원이라는 직책으로 직접 세계 몇몇국의 영업 현장을

누비며 해외 제약 영업에 나서 보았다”며 “세계 의료 현장을 누비며 직접 유통이 가능할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됐으며 본격적으로 직판 시스템 구축에 나서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서 회장은 바이오의약품 개발과 생산은 물론, 직판까지 가능한 기업이 완성되면 2020년 말 은퇴할 계획이다.

그는 “은퇴 후 경영은 전문경영인에게 맡길 계획”이라며 “아들에게는 이사회 의장을 맡기고 회사의 미래를 고민하는 역할을 하도록 해 소유와 경영이 분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공장 건설에 대한 계획도 털어놨다. 현재 셀트리온은 해외 진출에 따른 생산 능력 확대 필요로 1공장에 5만 l를 증설 중이며 3공장 건설을 검토 중이다.

서 회장은 “생산 능력 추가 확보를 위해 국내에 3공장 12만 l를 신규 건설할 예정”이라며 “가격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생산비용이 저렴한 일부 해외 국가에 24만 l 규모의 공장 건설을 고민 중”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11월 대한항공 기내 승무원에 갑질을 했다는 논란에 대해서도 털어놨다. 그는 갑질과 관련, “사람이다 보니 실수할 때가 있다”며 “회사 직원들을 챙기려는 마음에 표현이 아슬아슬했던 듯하다”고 했다. [이세경 기자 sellee@